



변화하는 아시아의 인쇄계

지난 6월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제 9회 아시아·퍼시픽인쇄기술포럼(FAGAT)이 개최되었다. 현재 FAGAT의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으로 이번에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이 참가했다.

포럼 첫날은 총회에서 FAGAT 각국의 대표자 2~3명이 참가해 FAGAT의 운영 등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차기 FAGAT를 필리핀에서 행할 것을 결정했다. 필리핀 측에서는 대통령의 출석도 특별 요청해 성대하게 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 날에는 각국의 인쇄산업 현황, 기술적 과제 등의 보고가 세미나 형식으로 행해졌다. 중국내의 인쇄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300명 정도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FAGAT 회원단체 이외의 발표로, 기조 강연에서 일본 돛판인쇄의 후지타 회장이 '가치창조산업으로서의 인쇄'라는 주제로, 일본 인쇄산업의 개괄적인 현황과 돛판인쇄의 사업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고궁 전체를 3G 화상화 한 중

국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리고 하이텔 베르그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인쇄 수요 확대 가능성과 경제발전에 수반하는 인쇄 수요나 기술 변화의 방향을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하이텔베르그 제품과 관련해서는 프리넥 워크플로와 애니컬러 및 UV기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밖에도 1991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중국 굴지의 대인쇄기업 그룹이 된 Heshan Astros Printing Ltd의 Feng Kwong Yuen 회장의 강연이 있었다. 그는 회사의 성장 기반이 되고 있는 '기업 문화'에 대해서 자사의 구체적인 활동을 소개, "기업 문화는 거기서 일하는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근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화인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차용물은 아니고 정말로 자사에 적절한 것일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각국 발표의 공통점은 인쇄산업은 인터넷 시대에 대한 대응, 디지털 인쇄에 대한 기대, 그것들을 포함한 인쇄 부대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등 3가지였다. 다음은 일본인쇄기술협회 소식지에 게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미 서적의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중국



중국인쇄기술협회 부회장인 沈海祥씨가 발표한 '현재의 중국 인쇄산업의 분석과 전략'에서는 중국 인쇄산업의 출하액이 연 15%의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보급의 마이너스적인 면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인쇄산업의 견인 역할을 한 패키지 인쇄는 전체의 34%로 월등하게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서적 및 잡지(21%), 신문(14%), 해외 인쇄 수주(9%)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기존에 많이 이용했던 홍보 인쇄물의 성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과 출판인쇄 시장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 광고비는 2004년까지는 연 30% 이상으로 성장했던 것이 2005년에는 6%로 저하했다. 6%의 성장은 GDP 성장을 밀도는 것으로 발행부수도 2006년에는 주요 13개사 중 6개 회사로 감소되었다. 반면 디지털 인쇄기 보급은 해마다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05년 디지털 인쇄기 설치 대수는 871세트에 이르고 있다.

국가의 지원으로 성장하는 태국



태국의 인쇄업계는 국가의 시책에 편승해 지원을 잘 받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식품 수출국, 지적재산권 보유 국가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저작권 보호 등에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한 인쇄 관련기자재의 세금 경감, 인쇄공업 단지 설립 등의 지원책을 밝히고 있다. 인쇄와 관련해서는 출판 인쇄, 패키지 인쇄에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향후의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오이타현이 추천한 「1촌 1품 운동」을 표본으로 한 시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6% 성장하는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는 자국의 인쇄업 개요를 소개한 다음, 새로운 시대의 인재 교육 필요성과 현재의 대처 상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스리랑카의 경제는 호조 분위기여서 2006년의 GDP 신장을 18%, 1인당 GDP도 13% 성장했다고 한다. 따라서

종이제품 수요도 7.3% 증가했다. 스리랑카의 인쇄기업 수는 3천여개사, 종업원 수 4만여명, 출하액은 20억 달러로 연평균 신장율은 6%이다. 스리랑카의 인쇄인 교육은 정부(학교), 인쇄조합, 해외지원 등 세 가지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해외지원은 INGRIN이라고 하는 유럽계의 교육 비즈니스 기업에서 개발도상국의 업계와 협조하면서 산업교육을 위한 인재를 파견하고 있는 기업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또 'Sri Lanka German Training College'에 의한 인쇄기나 후가공기계에 관한 점검을 위한 기계, 전기·전자의 트레이닝 코스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절반 가까운 업체 폐업의향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현재 국내의 경제 상황, 인쇄산업의 현황 보고와 향후의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성숙화된 오스트레일리아 경제 안에서의 인쇄산업은 가격 저하와 능력있는 작업자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 책임, 환경 문제로부터의 패키지 인쇄물 삭감 압력, DM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해외로 인쇄 수요 유출, 미디어의 다양화 등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신 조사에 의하면, 업계의 38% 기업은 5년 이내, 64%의 기업은 10년 이내에 폐업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욕구 변화 거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환경 변화와 업계의 대응책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다양화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의 소비자의 변화, 소량·단납기화 하는 고객 요구, 공급 과잉에 의한 중소 인쇄업의 어려움에 대해 다룬 다음, 향후 인쇄산업의 과제에 인쇄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는 인쇄물 제공을 위해서, 기술면에서는 배리어블 인쇄의 이용, 크로스 미디어 서비스의 전개와 소프트 면에서는 인쇄물의 효과 측정을 포함한 토털솔루션 제공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